

ACC '수요극장' 올해도 대형 스크린으로 만나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의 '수요극장'은 국내외 우수 공연을 생생한 영상으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무엇보다 대형 화면을 통해 다양한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문화 향유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다.

ACC는 지난해 우수 공연 17편을 상영해 호평을 받았다. 특히 가족 단위 관객층이 많이 찾은 만큼 ACC의 인기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도 ACC 수요극장 무대가 펼쳐진다.

오는 18일부터 12월까지 첫째, 셋째 수요일 오후 7시 ACC 문화정보원 극장 3에서 열리는 수요극장은 작품성과 대중성을 아우르는 작품들로 구성됐다.

먼저 18일에는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의 '전람회의 그림'이 펼쳐진다. 뛰어난 음악성과 해석력으로 주목 받고 있는 지휘자 피네긴 다우니 디에와 2016년 킨 엘리자베스 콩쿠르 1위 수상자인 피아니스트 루카스 본드라첵, 고전과 현대를 아우르는 폭넓은 레퍼토리를 자랑하며 국내 교향악 역사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의 협연이 펼쳐진다.

오는 2월 1일에는 국립창극단의 '패왕별희'가 상영된다. 춘추전국시대 초한전쟁에서 패하고 자결하는 영웅 항우와 그의 연인 우희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지난 2019년 국립극장에서 초연된 지 난 년 만에 예술의 전당 토월극장에서 다시 공연될 정도로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받았다.

특히 '패왕별희' 속 경극을 우리 소리 창극으로 재탄생시켰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배우의 손끝으로 세상을 표현하는 시각 중심 경극과 소리 하나로 세상을 보여주는 창극이 만나 한 폭의 그림같은 펼쳐진다. 우희 역을 맡은 김준수는 여장을 한 남자배우로 변신해 극찬을 받았다.

오는 3월 1일에는 국립오페라단 '나부코'를 만

18일,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전람회의 그림' 첫 상영
국립창극단 '패왕별희'·국립오페라단 '나부코' 등 감상



국립창극단의 '패왕별희' 공연 장면 <ACC 제공>

날 수 있다. 이탈리아가 낳은 위대한 작곡가 베르디의 걸작으로 민족의 해방과 안녕을 노래했다. 작품은 3·1절을 기념해 상영된다. '나부코'는 민족의 해방을 노래한 작품인 만큼 독립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작품이다.

이어 15일에는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천년의 노래-Rebirth'가 관객들을 만난다. 시간간의 제약을 넘어 공연의 섬세한 부분까지 감상할 수 있는 기회다.

4월 첫째 주 수요일(5)에는 국립무용단의 '홀춤II'를 감상할 수 있다. '새로운 전통을 새긴 그들이 홀로 추는 춤'이라는 의미를 담은 작품답게 관객들의 시선을 끌 것으로 보인다.

한편 4월 이후의 프로그램 일정은 추후 ACC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수요극장은 전석 무료이며 ACC 홈페이지와 현장 예매로 관람이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생동하는 공간' 남도

손병현 작가 '순천 아랫장 주막집 거시기들' 펴내

남도는 지금까지 많은 작가들에 의해 역사적 공간으로 그려져 왔다. 5·18민주화운동이 나 10·19여순사건을 작품 속에서 다룬 경우가 일반적이다. 아울러 역사적인 폭력이 행했던 상흔의 공간으로서의 남도는 많은 이들에게 아픔과 슬픔, 고통을 안겨주었다.

남도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한 발 비껴서서 바라보면 살아 숨 쉬는 일상의 모습과 마주할 수 있다. 광활한 공간에 무수한 생명을 그려 안고 있는 개별 같은 모습이 남도의 감춰진 일상이기도 하다.

이처럼 작가가 남도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작품의 빛깔은 달라진다. 역사를 다루든 아니든 일상을 다루든 그러나 기저에는 남도의 생명력과 역동성이 드리워져 있다.

광주일보 신춘문예(1999) 출신 손병현 작가가 펴낸 세 번째 소설집 '순천 아랫장 주막집 거시기들' (문학들)은 남도를 '생동하는 공간'으로 그리고 있다.

이번 소설집에서 손 작가가 바라보는 남도는 '기념비적 장소'가 아니다. 남도라는 이름 아래 펼쳐진 무명함 이들의 삶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남도인의 삶에 깃든 무조간적인 환대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포용력을 주목한다.

'순천아랫장 주막집 거시기들'이라는 모임에는 ○○라이온스 클럽, ○○향우회, ○○전우회 ○○지부, ○○종친회 등과 같은 명칭이 나온다. 그러나 이런 명칭에서는 지역 권력의 냄새가 느껴지지 않는다. 아마도 이곳에



서는 누구나, 어떤 사건도 거시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손 작가는 이번 소설집에서 그렇게 남도의 일상을 모티프로 입담을 선사한다. 감칠맛 나는 어휘는 소설의 읽는 맛을 선사하고 눈앞의 풍경을 옮겨온 듯한 상상을 불러일으킨다.

앞서 손 작가는 5·18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장편소설 '동문다리 브라더스'를 펴낸 바 있다. 그동안 오월문화에 대한 전작을 해왔던 작가는 이번 소설집을 기점으로 새로운 변신을 시도한 것이다. 이전 소설과 비교해 동일한 점은 입담과 특성이다. 새로운 장소성과 언어를 찾아내 그것을 작품에 녹여내는 역량이 만만치 않다.

이번 소설집을 통해 새롭게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작가는 마치 '세계의 패배자들이여 남도로 오라'고 손짓을 하는 것 같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또 다른 사람냄새 풀풀 날리는 남도의 이야기가 숨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손 작가는 광주대 문창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지금까지 창작집 '해 뜨는 풍경', '술 만한 놈이 나타났다'와 장편 '내 곁에 유령', '동문다리 브라더스'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독주회 기회...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주니어 콘서트 오디션'

피아노·현악·기악·성악 부문

25~31일 접수...대면으로 진행

유·스퀘어 문화관이 '제14회 금호주니어 콘서트 오디션'을 개최한다.

문화관은 지난 2010년을 시작으로 매년 2월 금호주니어 콘서트 오디션을 열었다.

심사를 거쳐 오디션에 합격한 이들은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독주회의 기회를 갖는다.

비대면으로 진행될 지난해 오디션에는 총 10명이 합격했다. 유·스퀘어 문화관은 금호주니어 콘서트 오디션을 통해 13년간 총 159회의 연주회를 열었으며 현재까지 167명을 데뷔시켰다.

오디션은 광주·전남·전북 출신이며 199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만 26세 이하)이고 피아노, 현악, 기악, 성악 부문 음악 전공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25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신청서와 신분증사본, 참가비(11만 원)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금호주니어 콘서트 오디션 장면.

<유·스퀘어 문화관 제공>

유·스퀘어 문화관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 받은 뒤 이메일(kumhojuniorconcert@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2월 15일에는 오디션 세부 일정이 발표되며 본격적인 오디션은 2월 22일부터 23일까지 대면으로 열린다. 합격자는 3월 2일 발표된다. 모든 곡은

암보로 연주해야 하며 신청서에 작성한 곡목대로 선보여야 한다. 또 반주자는 필요시 본인이 대동할 수 있으며 피아노 외 악기는 개인이 지참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스퀘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전남 목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에 있는 신안선.

<해양문화재연구소 제공>

'신안선' 재보존처리 어떻게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보존 프로젝트' 종합보고서 발간

신안선은 지난 1975년 신안군 중도 해역에서 어부가 도자기를 던져 올리면서 존재가 드러난 원나라 무연선이다.

1976년부터 1984년까지 수중 발굴조사 당시 총 729편의 목부재로 발굴됐으며 유물 2만7000여 점과 동전 28(톤) 등이 나왔다.

현재 전체 일부는 2002년부터 목포해양유물전시관에서 보존처리 등을 거쳐 전시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표면의 색상이 변하는 등 재보존처리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신안선의 열화물질 제거 등 안전한 재 보존처리를 위한 방안을 담은 '신안선 보존 프로젝트' 종합보고서를 발간했다.

열화란 외부환경에 장기간 노출될수록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으로 손상되는 현상을 말한다.

연구소가 이번 보고서를 발간한 것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목포해양유물전시관에서 전시해 오고 있으나 지속적인 환경변화를 겪으며 전체 표면의 색상이 변하고 분말화하는 등 열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된 신안선 점검을 비롯해 열화물질 연구, 재처리 방안, 상태기록 등의 내용이 수록돼 있다.

한편 보고서는 해양문화재연구소 누리집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카툰으로 만나는 정치 풍자 '세상이 이상해'

박항미 전, 31일까지 오월미술관

18일 작가와의 대화·판소리공연

'우쾌하지만, 날카로운 풍자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박항미 풍자 카툰전 '세상이 이상해'가 오는 31일까지 동구 오월미술관(광주시 동구 문화전당로 29-1 2층)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카툰 작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인 박 작가가 정치 풍자 카툰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다. 박 작가는 검찰 공화국이 된 대한민국의 상황, 윤 대통령 부부의 모습을 풍자한 다양한 작품을 전시한다.

18일 오후 6시에는 박항미 작가와 대화의 시간도 마련된다. 행사에서는 박종화 광주연예총회장의 기타 연주와 흥양예술단 소리꾼 정준찬의 판소리 공연도 펼쳐진다.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일러스트, 카툰, 만화 등을 넘나들며 다양한 작업을 펼치고 있는 박 작가는 어린이 동화책, 실용서 등 150여권에 그림을 그렸으며 한겨레, 내일신문, 여성신문에서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했다. 지난해에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재명의 소년공 시절을 카툰으로 그려 화제가 됐으며 이후 시사 문제에 초점을 둔 풍자 카툰을 SNS에 게재하며 많은 소통하고 있다.

박항미 작가는 "현재 한국사회에 가장 필요한 예술이 정치 카툰일 것이다. 예술가가 세상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위트와 유머로 지끈거리는 머리를 잠시 맑게 하는 정신 비타민은 쏘아올릴 수 있다"며 "하늘에 터뜨려진 풍자 비타민 가루를 마시고 잠시 여유를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80~90년대 대표 순정만화

케이툰서 무료 공개

1980~1990년대 한국 순정만화의 대표 여성작가 6명의 작품이 웹툰으로 재탄생했다.

한국만화가협회와 KT스토리위즈는 16일 웹툰 플랫폼 케이툰에서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순정' 기획전을 열고 신일숙, 김진 등 여성 만화가 6명의 과거 작품을 웹툰 형식으로 편집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신일숙 작가의 '크리슈타' 외 대표단편선집과 김진의 '에레보스' 외 대표단편선집을 비롯해 문홍미의 'in 서울', 이향우의 '우주인', 최인선의 '속보이는 놈', '픽션', 한혜연의 '자오선을 지나다'·'어느 특별한 하루' 등이 세로 스크롤 형식으로 가공됐다. 작품들은 모두 무료로 볼 수 있다.

김진 작가는 "우리가 속하고 지나왔던 시절의 작품을 웹툰 형태로 보여드릴 수 있어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LED 무드등 만들기...ACC, 청소년 창작 프로그램 운영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이 보유한 첨단장비와 설비를 활용해 무드등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대상은 청소년이며 교육은 2월 1일과 8일, ACC 문화창조원 북합스튜디오.

ACC가 운영하는 '청소년 창작 워크숍(LED 무드등 만들기)'은 청소년이 겨울방학 기간을 활용해 전당의 창작작 스튜디오를 매개로 문화 예술

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이다.

교육은 무료이며 회당 선착순 20명 모집. ACC 누리집에 수강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ACC는 이번 청소년 창작 공동연수를 시작으로 한해 아시아문화박물관의 전시와 연계한 문화체험, 진로 체험을 위한 예비전문인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